

8월 2일(월) / 대상 20-23

- ▶ **내용요약** : 역대상 20장에는 암논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랍바를 함락시킨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이후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과도 싸워서 그들을 격파하였다. 한편 21장에서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악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셨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22장에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그는 석수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백향목을 많이 준비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할 것과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교훈했다. 23장에서 노년의 다윗은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다.
- ▶ **질문** : 사탄이 다윗을 유혹하여 하게 한 일은? (21장)
- ▶ **생각하기** : 다윗은 성전을 직접 건축하고자 했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성전 건축 재료를 준비하는 일에 충실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꺼이 조연의 역할을 해낸 것이다. 이는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기뻐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8월 5일(목) / 대하 1-3

- ▶ **내용요약** : 역대하 1장에서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께 천 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셨고, 그의 간청에 따라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셨다. 한편 2장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두로의 왕에게 협력을 요청하였다. 3장에서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다. 그 곳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었다,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다윗이 정한 곳이었다.
- ▶ **질문** : 아래의 빈 칸을 각각 채우시오. (1장)  
"주는 이제 내게 ( )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 )하리이까"
- ▶ **생각하기** : 솔로몬은 자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리고 재판하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우리도 스스로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혜를 구하는 기도자가 되자.

8월 8일(일) / 대하 10-13

- ▶ **내용요약** : 역대하 10장에서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르호보암은 세금의 부담을 낮춰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거부하다가 민심을 잃고 말았다. 결국 솔로몬의 죄로 인해 진노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둘로 나뉘게 되었다. 이에 11장에서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의 용사 십팔만 명을 모으고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후 르호보암은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했다. 한편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남 왕국 유다로

8월 3일(화) / 대상 24-26

- ▶ **내용요약** : 역대상 24장에는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 즉 아론 자손의 계열들과 그들의 직무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죽임을 당했고, 이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다. 25장에는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신령한 노래를 위해 구별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한편 26장에는 성전 문지기, 성전 공간을 맡은 사람들과 다른 레위 사람들의 직업들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특별히 성전 문지기들 중에는 '큰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성전과 관련된 직무뿐 아니라 군사적 역할도 감당했다.
- ▶ **질문** : 아론의 아들 중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죽임을 당한 사람은? (24장)
- ▶ **생각하기** :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고 구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 직분을 주신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리자.

8월 6일(금) / 대하 4-6

- ▶ **내용요약** : 역대하 4장에는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솔로몬은 놋으로 제단과 바다를 만들었다. 또한 물두멍 열 개, 등잔대와 상 등을 만들었다. 5장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쳤다. 이후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하나님의 전 공간에 옮겨놓았다. 한편 솔로몬은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왔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했고,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 가득했다. 이에 6장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향해 축복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향해 드리는 모든 기도 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기를 간구했다.
- ▶ **질문** : 아래의 빈 칸을 각각 채우시오. (6장)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 곳에서 하는 기도에 ( )을 드시고 ( )를 기울이소서"
- ▶ **생각하기** : 솔로몬은 성전을 향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 중에도 예루살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응답하셨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 수 세기가 흘러도 우리의 기도가 여전히 유효한 이유다.

돌아왔는데, 북 왕국의 예로보암 왕이 그들을 해임하였을 뿐 아니라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했기 때문이었다. 12장에서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왕 시삭으로 하여금 유다를 공격하게 하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 왕의 회개를 보시고 남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셨다. 그렇게 르호보암 왕은 십 칠 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후 세상을 떠났다. 한편 13장에는 남왕국과 북왕국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남왕국의 아비야가 승리를 거두어 점점 더 세력을 더해갔다.

8월 4일(수) / 대상 27-29

- ▶ **내용요약** : 역대상 27장에는 레위인 뿐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 그리고 왕을 섬기는 관원들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또한 각 지파를 관할하는 자들,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을 비롯하여 다윗을 섬겼던 사람들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특히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그는 다윗의 모사이자 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 28장에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자신이 아닌 자신의 아들 솔로몬과 함께 그 일을 행하도록 명령했다. 이어서 29장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온 회중에게도 하나님을 송축하도록 교훈했다. 그렇게 다윗은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 ▶ **질문** :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29장)
- ▶ **생각하기** : 다윗은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누구보다 많은 실패를 겪었고, 치명적인 죄를 범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었다. 불안과 두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자. 죄로 인해 징계를 받을 때에는 진심으로 회개하며 죄로부터 돌이키자.

8월 7일(토) / 대하 7-9

- ▶ **내용요약** : 역대하 7장에는 성전 낙성식이 기록되어 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을 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랐고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 가득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약속과 경고의 말씀을 더해 주셨다. 8장에는 솔로몬의 업적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솔로몬은 이십 년 동안 여호와의 전과 자신의 궁궐을 건축했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모세의 명령에 따라 안식일, 초하루 뿐 아니라 정한 절기들(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켰다. 한편 9장에서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와 모든 건축물을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 보고, 하나님을 송축했다. 이후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사십 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 ▶ **질문** :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을 듣고 찾아왔던 여왕은? (9장)
- ▶ **생각하기** :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다. 물론 솔로몬은 지혜롭고 위대한 왕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신 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하자. 그리고 그분을 열망하며 그분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자.

- ▶ **질문** :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은? (10장)
- ▶ **생각하기** : 노년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여 많은 우상을 들여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어 남 왕국 유다만을 다윗의 후손들에게 남겨주셨다. 그 어떤 부귀와 영화도, 세상의 모든 지혜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기억하자. 우리 자신과 우리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